새희망의 길

VOL.18

기획특집
약속과 책임을 이정표 삼아 희망을 현실로!
2015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이슈 & 사회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현장 24시
강북고객본부지부 광진마케팅부 유통영업1팀 유병복 조합원
KTTU NO.1
'1등 DNA' 대구엔지니어링센터지부

KTTU kt 노동조합

새희망의 길

KTTU kt 노동조합 (463-71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206) T 031)727-2836 F 031)727-2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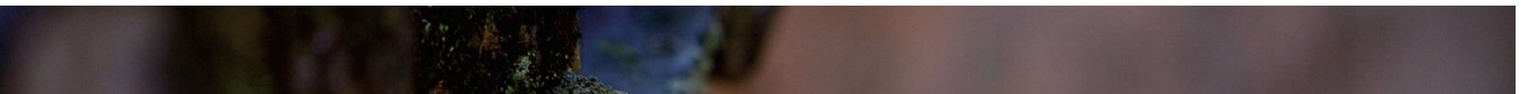
믿음이 희망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으나 아직 봄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느새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한창이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봄은 순순히 온기를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늘 시련은 가깝고 희망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곧 따스한 봄이 찾아와 온화한 볕을 내어줄 것을 믿기
에 꽃샘추위 쯤 담담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은 믿음에서 오고, 시련 없이는 결실도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한 조합원의 변함없는 믿음이야말로
결실의 가장 든든한 디딤돌 입니다.

KT노동조합은 일터의 혁신과 변화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실리를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조합원들의 믿음만 있다면
2015년을 희망과 결실의 해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Contents

vol. 18

새희망의 길

KTTU NEWS	04	NEWS
기획특집	08	2015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도전, 60일	12	금연에 도전하는 이재연 조합원
이슈 & 사회	14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현장 24시	16	강북고객본부지부 광진마케팅부 유통영업1팀 유병복 조합원
KTTU 카툰	20	감성복지 프로그램
KTTU NO.1	22	1등 DNA, 대구엔지니어링센터지부
KTTU 리서치 01	26	다온플랜 웨딩서비스 이용후기
KTTU 리서치 02	28	KT해아림 심리상담센터 힐링캠프
컬덕트	30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너머 이야기
길따라 멋따라	32	별 아저씨의 별별이야기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완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6
발행일 | 2015년 4월 17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그룹희망나눔재단 02-3414-2053 **인쇄 |** (주)삼립인쇄 02-469-7111

KT TRADE UNION News

KT Wiz-Day 및 우리가족 孝-Day 시행안내

노사상생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신노사문화 계승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의 일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조합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KT Wiz-Day와 우리가족 孝-D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KT Wiz – Day (4~6월)

- 선정인원 : 100가족(본인 필참)
  - 수도권 50가족(수원 홈경기)
  - 지역 50가족(원정경기)
- 선정방법 : 지역본부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선정(고객본부, NW운용본부 적의 선정)
- 지원내용 : KT Wiz 주말 경기 테이블석 (4인 기준) 티켓 제공
- 추진일정 : 4월~6월

우리가족 孝 – Day (5월)

- 선정인원 : 50가족
  - 3대가족참여, 고령자/다자녀 우선, 본인필참
- 선정방법 : 지역본부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선정(고객본부, NW운용본부 적의 선정)
- 지원내용 : 수련관 출장 생활입소(장기근속 지원기준 처리), 고급 과일바구니 증정
  - 이용기간 : 5월 13일 ~ 5월 15일 / 5월 20일 ~ 5월 22일 중 택일
  - 이용시설 : 대상자가 지정
- 추진일정 : 5월
  - 장애인 자녀 가족 대상 별도 추가(지역본부별 1가족 추천)

임직원 초등자녀 대상 화상영어 교육지원 교육 프로그램

조합원 초등자녀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화상영어 교육 프로그램

KT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13일(월) 분당 본사 KBN 방송실에서 임직원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200명을 선정했다.

추첨에는 노사 각 3명씩, 노동조합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차완규 정책실장, 최장복 조직실장과 회사측 이원준 인사기획담당, 김무성 경영지원담당, 최호창 기업문화담당 상무가 참여했으며, 지역별 박스추첨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추첨에는 전북지역 배정인원(애초 학년별 2명)에서 각 1명씩밖에 지원하지 않아 예비 후보자 1순위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초등자녀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현장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컨텐츠는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가 제공된다. 대상은 초등 5, 6학년 자녀를 둔 조합원과 직원이다.

※ 선정자(5,6학년 각 100명) 명단과 예비 후보자 명단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 바랍니다.

적립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급여공제 서비스 안내

2015년 개정세법에 따른 세제혜택과 희망자에 한하여 IRP 급여공제

- 신청방법
  - 적립형 IRP 계좌개설 : 금융기관 직접방문 또는 첨부파일(자료실 안내문) 참조
  - 전산(ERP) 이체금액 및 계좌정보 입력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퇴직금 ▶ 적립형 IRP ▶ 급여공제 신청
- 신청기간 : 매월 25일 ~ 익월 10일
  - 2015년 4월은 4.9부터 4.15까지
  - 개인별 공제금액 및 계좌정보 입력 : 4.9(목) ~ 4.15(수)
  - 급여공제 : 4.24(금)
- 금융기관 : 기존 사업자(자료실 첨부파일 안내문) 중에서 계좌 개설
- 유의사항
  - 중도 해지 가능하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과세
  - 기 세액공제율 13.2%+기타소득세 3.3%
  - 비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발생 가능

2015년 마이스터 운영 및 선발계획

중기 마이스터 양성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원 확대

- 운영방향
  - 융·복합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유사 분야간 이동 허용
- 대상분야 : 기술(NW/IT기술), 영업(PM/AM/ITC/IT영업/유통영업), R&D
- 선발규모 : 총 78명
- 선발기준
  - 전문레벨 : 2014년 Pre-Meister
  - 인사평가 : 2014년 성과평가 E 이상
  - 업무기간 : 해당분야 3년 이상 수행
  - 교육이수 : 필수(전문) 교육이수
  - 추가기준(택) : 부서장 추천, 필기, 면접, 실적(영업분야 必), 시장가치 및 연구성과(R&D분야 必)
- 선발일정
  - 분야별 선발 T/O의 1배수 추천 : 5.29(금)
  - 인사위원회 후 최종선발 : 6월중.

2015년 상반기 창업지원휴직 시행

개인별 역량개발 및 경력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지원자격 : 실근속기간 20년 이상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 등 제외)
  -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대상분야 : 제한없음(개인이 희망한 모든 창업분야)
- 휴직기간 : 1년 6개월 ~ 3년 6개월
  - 의무휴직기간: 1년6개월, 6개월 단위 최대 2년 연장가능
- 신청방법 : 희망자가 신청서류(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스템 등록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4월 10일(금) ~ 4월 17일(금)
  - 1차 심의 : 4월 20일(월) ~ 4월 22일(수)
  - 2차 심의 : 4월 23일(목) ~ 4월 24일(금)
  - 최종선정 : 4월 27일(월)
  - 휴직발령 : 5월 1일(금)

2015년 중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교육 신청안내

온라인 강의 1년 무제한 수강 서비스

- 신청일 : 4월 2일부터
- 기존 수박씨 이용자 : 1년간 자동 연장
- 신규 가입자 :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

집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통신비 선택지원

4월 1일부터 집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중 1회선을 선택하여 통신비 1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통신비 1만원
  - 지원대상 (1인 1회선)
    - 전화명의 :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본인 외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 전화 포함
- 지원범위
  - 시내, 시외, LM, 국제 등 요금제를 포함한 통화료(또는 이용료, 월정액)
  - 부가서비스료(이용료) 단, CP와의 정산 또는 회수대행성 서비스는 제외(링고 등)
  - 기본료 성격인 신요금제 BOT 월정액이나 싱글요금제 월정액인 경우 급지에 따른 해당 기본료를 제외한 금액
- 신청위치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통신비지원 ▶ 통신비지원
  - 신청시 : 신규 신청시 익월 사용분부터 적용
  - 변경시 : 기 등록된 통신비 번호 삭제후 인터넷전화번호 신청시, 익월 사용분부터 적용
  - 삭제시 : 통신비 지원삭제 요청시, 삭제 신청한 익월 사용분부터 미적용

2015년도 성과급 지급규모 및 지급일정 안내

- 적용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 A직, C직 및 Sales직(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지급규모(단위 %)
    - G직 : 750±100 (직책750±150)
    - A직 : 485~2,140 (직책465~2,160)
    - C직/Sales직 : 월평균지급률(62.5%)에 전월 실적을 반영한 지급률
    - 월별 지급일정 : 2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Core-time 근로시간제 운영안내

근무형태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

고객 친화적 근무형태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과 업무량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을 통한 인력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Core-time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 개요 :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고객서비스(개통/AS), 영업직무의 직원들이 중단없는 고객Care를 위해 다양한 근무시간을 선택 운영
- 대상 : 고객접점부서에 종사하는 직원 중 다음 직무 종사자
  - 영업분야 : 유통영업, Core Sales, 기술영업, AM
  - CS분야 : 고객서비스/영업, 네트워크기술지원, CS운영/선로
- 근로시간
  - A-type : 07:00~16:00
  - B-type : 09:00~18:00
  - C-type : 11:00~20:00
- 운영 프로세스
  - 신청단위 : 최대 1개월
  - 신청시기 : 시작월 7일 전
  - 신청방법 : ERP 〉 HR 〉 복무/출장 〉 유연근로제 〉 Coretime 근로시간제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업무성격과 상황에 따라 직출·직퇴 가능
  - 휴게/휴가/휴일 : 일반 근로조건과 동일
  - 선택근로시간제 등 기타 유연근로와 중복사용 불가
- 시행일 : 2015년 3월 1일

연구개발 및 IT설계 · 분석 직무대상자에 한해 재량근로제 시행안내

1개월 내에서 하루단위 신청가능(7일전까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및 IT설계 · 분석 직무 등에 대해 업무몰입을 통한 창의성 극대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량근로제를 시행한다.

■ 운영목적

– 직무특성을 고려한 근무제도 조기 안정화로 직원만족도 향상

– 창의성 극대화를 통한 몰입도 향상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 세부운영

– 대상 : 연구개발 및 IT설계 · 분석 직무 중 허용한 직원

– 대상직무 현황(2015.3.1일 현재)

① 융합기술원 : 기술전략, 단말기술연구, 컨버전스기술연구, 네트워크기술연구, 미디어기술연구, IT기술연구, IPR 연구, 지적재산권기술연구 직무

② IT기획실 : Software개발, IT보안, IT설계, IT운영, 시스템개발 직무

■ 사용기간 : 1개월 내에서 일(日)단위 신청가능(7일전까지)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월~토),
※ 휴일은 재량근로 불가

– 초과근무 : 정상근무시와 동일 기준 적용

– 연차휴가 : 정상근무시와 동일 기준 적용
(연차휴가 : 8시간, 반차휴가 : 4시간)

– 휴일근무 : 부서장과 사전 협의된 휴일근무 가능 → 휴일수당지급

■ 시행일 : 2015년 3월 1일

KT노사 사회적 책임실천 공동선언식

사회공헌 확산 및 글로벌 노사문화 롤모델화 추진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31일(화) 분당본사에서 임영미 성남지청장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T노사 사회적 책임실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KT노사는 ▲창조적 신노사문화 계승 발전 및 고용안정과 회사가치 창출 공동노력 ▲UCC, 노사랑 등 KT 주도 사회공헌활동 확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동참 및 혁신적 서비스 제공으로 창조경제 실현 기여 ▲KT만의 노사문화 발굴하여 글로벌 노사문화 롤모델화 추진을 공동 선언했다.

KT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은 선언식에서 "KT노사는 국민기업이라는 자부심 아래 UCC, 베트남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고 소개한 뒤 "KT노동조합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만이 노사의 발전과 함께사는 세상 모두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의 선언을 통해 그 의지를 다시한번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영미 성남지청장은 "노사선언은 정년연장, 청년실업 등 노사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며 KT가 이를 기회로 국민기업을 넘어 세계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KT노사는 그 동안 KT만의 고유한 신뢰 노사문화 구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더욱 확장된 책임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합원 건강증진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과 MOU 체결

조합원 건강증진 위해 금연 · 절주 · 운동 캠페인 양사 노동조합 공동시행

KT노동조합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과 금연 · 절주 · 운동 캠페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노동조합은 2010년 상호협력에 관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추가하여, 건강한 '글로벌 1등 일터'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협정식에서 "음주, 흡연으로 인한 몸속의 변화 등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사 노동조합간 협력관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특히 흡연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중독 증상이므로 노동조합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위원장도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조합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양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발전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KT노동조합은 이번 MOU를 계기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문의 초청강연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과 참여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KT조합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여

"기억하라! 여성노동자, 힘내라! 여성노동자"

KT노동조합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조합간부들을 중심으로 지난 3월 7일(토)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07주년 3 · 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올해 대회는 '기억하라! 여성노동자, 힘내라! 여성노동자'를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연맹에서는 연맹집행부를 포함하여 KT노동조합 중앙 및 지방 여성국장, SK텔레콤노조, LG유플러스노조, 엔에이치테크노조 여성간부들과 한전KDN노조, 전국보조출연자노조, KT이엔에스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날 여성대회 참석자들은 "노동조건 차별 없는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확대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촉구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 중단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즉각 폐기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확산 중단 △OECD 평균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 △무상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이행 △국공립보육시설 30% 이상 확충과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일 · 가정 양립정책의 실효성 확보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 및 남성노동자의 자녀 양육 권리와 참여 보장 등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윤모 위원장은 "2015년, IT연맹 여성 노동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사별 근로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24시간 고충 · 안전 · 보건사항 접수 노사상생센터 개소

노동조합, 상생협의회 상설화 요구해 관철

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5일(목) 분당본사에서 조합간부 및 회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는 조합이 전국 지방본부에서 취합한 건의사항의 빠른 처리를 위해 노사상생협의회의 상설 운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과거 필요 시 개최했던 상생협의회가 상설화 됐으며, 노사상생센터 외에도 존경받는 1등 KT 분과, 노사문화선진화 분과를 동시 운영한다.

먼저, '노사상생센터'는 고충 · 안전 · 보건사항 24시간 접수, 최단시간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존경받는 1등 KT분과'는 고충 · 안전 · 보건 문제해결, 근로조건 혁신, 근무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노사문화 선진화분과'는 우수사례발굴 · 전파, 사회적 책임 실천, 노사문화 롤모델 발굴 및 글로벌 리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개소식에서 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은 "현장의 애로와 조합원 고충을 적극 해결해 상생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한다"고 격려하며, "노사가 함께 발전을 도모해 노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을 제안했다.

이대산 경영지원부문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사원의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신 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내 유례가 없는 상생센터 개소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선도해 나가는 KT노사가 되자"고 다짐했다.

■ **접수안내**

– 전화: 080–2580–119

– 문자: 1588–4936

– 이메일: kt119@kt.com

회계연도 2014년 하반기 회계감사 총평

규정대로 조합비 체계적이고 철저히 집행

KT노동조합은 2014년 하반기 중앙 회계감사에 대한 총평 및 보고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계감사는 11대 집행부 마지막 수감으로 지난 2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진행했다. 중앙회계감사위원회 임태복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어느덧 11대 집행부 마지막 총평을 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난 3년간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통장, 각종 증빙서류 및 영수증 등 전표처리가 깔끔하고 투명하게 정리돼 있었고, 전년도 환수대상도 전액 처리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덧붙여 몇몇 오지출 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지적한 뒤, 11대에 이어 12대 집행부 또한 규정대로 조합비를 체계적이고 철저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윤모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위해 애쓴 6명의 회감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지적한 사례는 철저히 바로잡을 것이며, 앞으로도 KT노동조합이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회계감사위원은 부산지방본부 남울산지부 임태복 대표위원을 비롯해 대구지방본부 안동지부 김시동(간사), 강북지방본부 중앙지부 구자철, 충남지방본부 서대전지부 임재한, 충남지방본부 대전유선운용센터지부 권영세, 강원지방본부 강릉지부 김종국 회감위원이다.

약속과 책임을 이정표 삼아 희망을 현실로!

2015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희망과 결실의 노동조합 건설'을 다짐하는 KT노동조합의 2015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3월 30일(월) KT본사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된 행사는 12대 집행부의 출발을 알리는 첫 전국대의원대회로서 전국 12개 지방본부에서 참석한 240명 대의원들과 조합간부들이 간소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2015년 전국대의원대회는 오후 2시 사전 문화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KT 조합원들로 구성된 6인조 밴드 '스파크'는 화려한 연주와 노래실력을 뽐내며 40여 분간 대강당을 가득 메웠고, 대의원들은 귀에 익숙한 7080가요와 팝송을 함께하며 이번 대회를 자축했다.

달아오른 분위기는 바로 본대회로 이어졌다. 김인관 조직1국장의 사회로 3시부터 진행된 본대회는 정윤모 위원장과 회사 경영진을 맞이하며 시작됐다. 이날은 황창규 회장이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한 가운데 이대산 경영지원부문장이 대표이사 대리로서 자리를 빛냈다. 이 외에도 신현옥 경영지원실장 등 회사 경영진들이 함께했고 참석하지 못한 많은 내 · 외빈들의 화환과 축하메시지도 전해졌다.

"지금은 노동의 존엄과 결실의 믿음 가질 때"

정윤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조합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회사 측에 획기적인 근로시간 개선을 요구"해 "직원에게 시간 배분을 위임하는 '재량근로 시간제'를 쟁취해 냈고 고객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도 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힌 뒤 "노동조합은 관련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조합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 약속했다.

정위원장은 이어 "저임금의 굴레, 구조조정의 불안,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막상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실태. 이러한 절망의 사회는 결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다"라고 현 시점을 진단하고 "근면과 성실, 정직이 인정받는 곳. 고용의 불안 없이 일한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희망하는 사회"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의 존엄과 결실의 믿음을 확인할 때"로 "냉소주의와 의문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답하자"며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이대산 경영지원부문장은 축사를 통해 "KT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만 8천 여 조합원을 대표해 대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건넨 뒤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위기극복과 경영혁신을 위해 노와 사가 함께 노력해왔다. 그 결과 실적도 회복되고 영업이익도 개선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기가인터넷 가입자 20만, 올레TV 가입자 600만 돌파의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 냈다"며 "이제부터는 5G 네트워크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기술로 엄청난 도약을 이끌어 낼 것으로 KT가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글로벌 1등 노사문화의 롤 모델이 되도록 서로 믿고 하나 되는 열린 노사문화를 위해 저부터 현장과 조합의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KT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훌륭한 국민기업으로 다시 세워 결실을 조합원들께 되돌려 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KT의 자부심으로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노사의 화합을 촉구했다.

함께하는 성장! 신바람 나는 복지실현!

1부 행사를 종료하고 잠시의 휴식을 거쳐 곧바로 진행된 2부 본회의는 대의원 총 241명 중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2014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015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자산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조합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상급 및 연합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에 관한 사항 등 8개 안건이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5호부터 8호까지의 안건은 상정 후 분리해 일괄투표가 진행됐고, 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황성관 사무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은 "모든 조합간부들이 일치단결해 결실을 맺도록 역할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본회의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정윤모 위원장은 "지부장과 대의원은 KT노동조합의 꽃"이라며 "중추적인 역할로서 힘들어도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아가자."고 다시 한 번 대의원들을 향해 강한 결속력을 당부했다.
이로써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 후 낭독을 끝으로 KT노동조합 2015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오후 5시 40분 경 마무리됐다.
이번 2015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어느 해보다 간소한 분위기로 진행 돼 12대 집행부와 함께 출발하는 KT노동조합의 결의가 한층 투명하게 돋보이는 대회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약 세 시간 반 가량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240명 대의원 모두는 신중한 자세로 행사 내내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행사진행을 맡은 요원들 또한 원활한 대회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처하며 만전을 기했다.
한편 이날 1부에는 희망과 결실의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노력한 우수지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영예의 수상 지부는 '부산지방본부 김해지부', '본사지방본부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 '전남지방본부 광주유선운용센터지부'의 3개 지부다. 이밖에 중앙위원 18명과 회계감사위원 7명이 선출되었다.

중앙위원 선출명단
정윤모(위원장), 황성관(사무총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 차완규(정책실장), 최장복(조직실장), 박호근(여성국장), 김석희(강북위원장), 한창성(강남위원장), 문경로(서부위원장), 이호우(부산위원장), 김해관(대구위원장), 김신(본사위원장), 정광우(전남위원장), 양정우(전북위원장), 조중오(충남위원장), 정지국(충북위원장), 심우승(강원위원장), 조순호(제주위원장)

회계감사위원 선출명단
김상찬(부산지방본부), 김시동(대구지방본부), 구자철(강북지방본부), 임재한(충남지방본부), 김종국(강원지방본부), 김남수(본사지방본부), 박철오(전남지방본부)
※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은 정원 48명 / 예비 7명으로 총 55명 선출

우수지부 대의원

2015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맞아 각지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새 출발을 위한 각오로 어느 때보다 진중한 모습이었다. 그 다부진 결의를 참가한 현장 대의원들의 목소리로 담았다.

전남지방본부 광주유선운용센터지부 / 류재수 대의원
11대를 거쳐 12대도 정윤모 위원장과 함께 KT의 새로운 장을 이끌게 된 데 대해 감회가 깊습니다. 전국 12개 지방본부 소속 240명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또 다른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의 약속과 다짐을 새 희망의 디딤돌로 삼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뿐 입니다. 저는 KT노동조합이 잘되는 것이 조합원들도 잘 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회사와 함께 노사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지부장 그리고 대의원은 이를 위해 일치단결하고, 노와 사가 화합해 희망과 결실의 노동조합이 되도록 책임 있는 걸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본사지방본부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 / 이영인 대의원
12대 집행부의 첫 출발과 함께 맞는 올해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리 지부가 우수지부 표창까지 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잘 견뎌왔고 이렇게 큰 대회를 통해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지부장이라는 자리를 처음 맡은 직후의 수상이라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지부의 조합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힘을 얻고 가는 만큼 12대 집행부도 대의원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서 보다 희망찬 결실을 거두는 KT노동조합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나는 복지실현의 그날까지 KT노동조합 파이팅 입니다!

26년, 이제 너를 떠나련다!

금연에 도전하는 이재연 조합원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양한 계획을 세운다. 그 다양한 계획 중 가장 흔히 보는 항목이 바로 '금연'이다. 3일 끊으면 다행일 정도로 어떤 계획보다 포기하기 쉽다.
흡연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한 모금의 담배 연기 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하지만 오늘 26년간 동고동락 해온 담배를 버리기고 새로운 오늘을 시작한 의지의 조합원이 있어 소개한다.

- 도전자 : 이재연 조합원
  (대구지방본부 경북유선운용센터지부 선로팀)
- 도전과제 : 금연
- 도전일시 : 3월 1일 ~ 현재 진행 중

경북유선운용센터 선로팀에서 기간선로 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연 조합원(47)은 지난 26년간 하루 한 갑 가까운 흡연(15개비)을 해왔다. 잦은 술자리에서는 얼마나 피는지 알 수도 없다. 밝고 활달한 성격에 운동을 좋아해 조기축구회, 연합회에서 열심히 운동한다. 물론 그만큼 뒤풀이도 많다. 사람, 술, 운동, 담배 좋아하는 그가 올해 담배를 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한 달 넘는 시간이 지났다.
큰 키에 다부진 몸매의 이재연 조합원, 평소 꾸준한 운동(축구, 등산) 등으로 건강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다. 운동하고 난 뒤 시원한 술 한잔에, 담배 한 모금은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내 체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뛰는 운동은 못 하는 게 없고 또래 누구보다 체력도 자신 있었는데 한계가 온 것 같았다. 예전만큼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시간이 줄었고, 아내와 등산도 자주 다녔지만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게 나기 시작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을 찾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흡연량과 음주습관에 변화가 없다면 큰 문제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의 약속 그리고 응원

아내는 물론이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고3인 딸의 '담배냄새 많이 난다'는 핀잔에 끊어 볼까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담뱃값 인상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 이때다 싶었다. 금연을 시작하기 전 금연에 성공한 주변 지인들에게 다양한 성공담을 물어보았다. 다양한 금연 방법도 알아봤다.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다.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피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금연 시작을 알렸다.
"제가 금연을 시작하면 아들도 피시방에 가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도 무조건 하지 말라고 시키는 것보다 저와 함께 무엇인가 하면 나름의 추억도 될 것 같아, 같은 날 시작했죠."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아버지의 금연 기간 동안 피시방 끊기. 자신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아들과의 약속도 함께 지키고 싶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금연은 시작되었다.
다음날 동료, 지인들에게 대대적으로 금연 시작을 알렸다. 각종 모임 SNS에 매일 금연을 도와주는 앱에서 알려주는 금연 상태 페이지를 올렸다. 아내와 큰딸의 소리없는 응원도 힘이 되었다. 아내는 담배를 피웠는지 의심하기보다 담배 냄새가 안나서 좋다며 필요한 게 없는지 챙겨주기 시작했다. 담배 냄새에 도망가던(?) 딸도 이젠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술자리를 줄였다.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운 지인들과의 만남을 일부러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술자리에 있으면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고민하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닌 일정을 잘 조정하기 위해 애썼다. 일찍 만나고 일찍 헤어진다거나 술자리보다는 함께 등산이나 운동을 하는 식이다. 고3에 올라간 딸의 하굣길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었다.
세 번째는 입에 달고 다니던 믹스커피를 끊었다. 출근하면 한 잔, 담배 피우면서 한잔, 식사 후에 한잔, 하루에 6잔은 기본이었다. 마실 때마다 담배다. 커피대신 여러 종류의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은은한 차 향기는 담배도 잊게 했다.
물론 지금까지 유혹이 없었을까. 그래도 담배 생각이 날 때면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제도 잘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을까 그리고 지금 불을 붙이면 그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내 약속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정도까지 되었다. 다만 조금씩 살이 찌고 있어, 계획적으로 운동하려고 한다. 매일 아침 10km 조깅과 식단 조절이다. 금연을 시작하면 조금씩 찐다고 하는데 벌써 5kg 나 쪘다. 전에는 때가 되면 밥 먹자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식욕이 돌아와 배고프다, 밥 먹자 하는 식이다.

금연을 시작하는 조합원들에게

금연을 시작하면서 3일이 가장 참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금연을 시작하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 이틀은 담배를 피울 생각도 못 했고, 3일째 하루는 정말 오기로 버텼습니다. 4일째부터는 담배 생각도 줄고 버릇처럼 담배를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혹 금연을 생각하는 분 중에 전자담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효과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그냥 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무식하지만 정직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

도전 60일! 신청방법

소속 및 도전과제를 기재 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 KT노동조합 정책실 편집국장 김민수
(mabin@kt.com, 031-727-2836)
※ 다이어트, 회화능력향상 등 모든 도전과제 신청 가능
※ 성공 시 10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ISSUE & SOCIETY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두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다. 영세케이블사업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방송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막아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세어 나온다.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과연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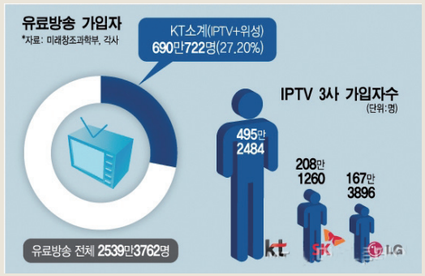
가입자 기준	기간	지역	시행	예외
1/3 (33%)	3년 일몰	전국	공포 이후 3개월 뒤	위성방송만 도달가능한 산간오지 지역

자료:국회 미방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정안은 영구 규제가 아닌 3년 후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법안이 시행되는 올 6월부터 3년 동안 시행된 후 소멸된다.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을 빚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가입자 산정 방식은 최근에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를 세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KT의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OTS'는 셋톱박스가 하나여서 하나로 산정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으로 나뉜 국내 상업유료방송 채널을 같은 한 기업의 독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재정됐다. 특정 기업의 시장 독과점은 건강한 기업 경쟁을 헤쳐 가격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낮춰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근본적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법안이 과연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KT의 독점 방지가 아닌 경쟁사의 이익 보전?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KT를 겨냥한 법안이라 볼 수 있다. KT는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해 지난해 2014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28.6%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3년 간 합산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게 됨에 따라 KT로선 가입자 유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시장에서 흔히 "KT의 발목이 묶였다"라는 얘기가 횡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딱 꼬집어 말하면 이번 법안의 본래 취지는 영세한 케이블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결국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이동통신시장에서 KT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업체들일 가능성이 높다. 방송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영세 케이블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제도적 지원을 하면 된다. 또한 영세 케이블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체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규제를 가함으로써 영세 케이블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번 합산규제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과도기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시장환경을 사전에 예측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지나친 규제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KT는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지켜보면서 건강한 시장환경을 위해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커다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원래 취지인 기존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보호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얼마나 보전해 질지 의문이 든다.

엉성한 법안 탓에 소비자가 피해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KT를 제외한 경쟁 업체들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합산규제 법안 자체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만 3년 후에는 법안의 효력이 소멸됨과 동시에 취지마저 사라지게 됐다"며 법안 무용론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어떤 사업자도 환영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KT 역시 이번 가입자 점유율 규제법안 통과로 인해 IT산업의 퇴보는 물론 국민의 자율 시청권마저도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한다.

KT는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역할에 관한 공적 논의 및 후속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정기간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제안한다.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역할에 대해 공론화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의 허가 약속 ▲휴대전화와 방송 상품 간 결합 금지 등이 그것이다.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 법안의 문제점과 후폭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의 3가지 요구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KT는 기업이 시장 전체를 독식해 건강한 시장경쟁을 망치는 행위를 적극 반대한다.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근본적 취지 또한 공감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이익을 주지 못하는 요소에 대해서 깊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합산규제나 시장 점유율 규제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과잉 규제이고 앞으로 KT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 좀더 합리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 할 것이다.

비즈니스 최전선의 멀티플레이어

강북고객본부지부 광진마케팅부 유통영업1팀 유병복 조합원

지난해 흥행했던 드라마 〈미생〉에 이런 말이 나온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병복 조합원의 얘기를 듣노라면 담담한 조언처럼 읊조리던 이 내레이션이 떠오른다. 현실을 한탄하기보다 끈기와 노련함으로 버텨가는 그의 하루하루는 완생(完生)으로 나아가는 생존 보고서에 다름 아니었다. 비즈니스 최전선의 멀티플레이어를 자처하는 그를 만나보자.

마케팅, 고객과 호흡하는 접점의 예술

2001년 7월 구 KTF시절 입사를 시작으로 유병복 조합원의 회사생활은 어느덧 15년차다.

함께 입사했던 66명의 동기들은 이제 40명으로 줄었지만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이어진 끈끈한 연대감은 지금도 그가 건재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다.

사실 그가 영업현장에 본격적으로 몸담은 시기는 지난 해 부터다. 입사 초기 5년간 현장에 몸담은 적이 있지만 당시는 정신없이 업무를 익히고 배우기 바빴던 때라 제한적인 감이 있었다. 이후 본사 총무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현장과 본사조직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본부 스텝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5년의 시간을 거친 후 지금에 이르렀다. 어찌 보면 애써 힘든 길을 택한 셈이다.

"한 조직에 5년을 있으니까 왠지 고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해진 업무 내에서 동일한 일을 익숙하게 하다보니 느슨해지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자원했죠. 사람들은 마케팅 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종합예술'이라 표현합니다. 일한만큼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운에 따라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으니까, 다이내믹하다고 할까요. 사실 8년간의 공백기를 거치고 9년차에 현장으로 내려오는데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신입 때의 경험으로 용기를 냈죠.

저는 현장이라는 말보다는 '접점'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접점에서 고객 또는 대리점 사장님들과 호흡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장생활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 작년 2월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떠났던 현장에 다시 돌아온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쌓아온 역량을 풀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여긴다. 그래서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밥값들 하라'는 말에도 최고로 인정받지는 않아도 '역할 이상은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속내를 내비친다.

거래처를 전국 1위로 만들다

그가 속한 광진마케팅부는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를 관할한다. 하지만 상권에 맞게 운용되는 것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소매채널인 경우이고 판매점을 상대로 하는 도매채널은 수도권 전역을 아우른다. 광진마케팅부의 도매채널 규모는 평균 40%. 소매담당 매니저들은 대리점 3~5개를 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병복 조합원은 KT의 가장 큰 도매대리점 한 곳을 맡고 있다.

"도매대리점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매장이 아니라 판매점을 상대로 거래하는 곳인데, 같은 도매라도 대리점 사이 영업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 거래처는 영등포에 자리한 가장 큰 도매대리점인데 이곳에서 거래하는 판매점만 약 700곳, 직원수만 60여 명이에요. KT 최다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고 최다 실적을 올리는 대리점이죠."

자신이 일군 결과가 아니라고 겸손히 말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만년 2위 자리에 머물던 이곳을 지난 일 년 동안 종합실적 1위에 올 2월 최다 누적가입자수를 기록하게 만든 데는 유조합원의 공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스스로 둥글둥글한 성격이라 생각하는 그를 동료들은 고집 세고 강한 성격이라 평한다. 영업 현장이 그저 성격 좋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유조합원은 언감생심 어림없는 소리라 손사래를 쳤다.

"초창기 때는 회사의 지원제도나 툴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자본력이나 지원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한가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KT에 대해 대리점들이 신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쏟아 붓느냐는 것과 긴가민가하고 거리를 둔 상태로 사업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죠.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은 치열한 헝거게임이기 때문에 정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업이 필요합니다."

대리점 사람들 또는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중에도 그들과 마음 맞고 뜻이 통해 어울린다고만 영업이 잘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다. 상호간의 신뢰에 덧붙여 데이터에 기반을 둔 손익관리와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호흡해야 치열한 통신시장의 매니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암흑기를 헤치고

거래처관리는 기본에 신규거래처 발굴까지 기본 미션으로 삼고 가는 것이 현장 매니저들의 일인 만큼 유조합원도 지난해 8월 의욕적으로 신규대리점을 개설했다. 하지만 10월 단통법 이후 시장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안타깝게 정리를 감행해야 했다고. 과거부터 대리점 개설과 정리를 경험하면서 대리점 사장님들의 눈물도 숱하게 봐왔다는 그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 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현재 돌아가는 시장상황이 어떻습니까?'하고 대리점 사장님과 통화를 하던 중 그분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온 거래처와 인적구성, 단말기 등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3~4년 전 도매채널의 암흑기였던 그때는 경영사도 대응방법이 없었죠."

막강한 마케팅력으로 무장한 경쟁사들의 기반을 흔들어 가입자를 돌려세운다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는 2년 전부터 KT가 제대로 붙어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 3~4년 전 도매시장 유통 인지도에서 3위까지 밀려난 KT가 이제 2위 자리를 회복하고 1위 자리를 위협하는 포지션까지 오게 됐다고 평가한다.

"최근 2년은 일할 맛 나는 시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밀리지 않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KT가 기존과는 다른 기조로 시장에 접근했고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그간의 패배의식과 침체기에서 벗어나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대리점 사장님들도 'KT와 함께하면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바꾸게 됐고요. 광대역 LTE-A에서 기가인터넷까지 저희가 이슈 선점을 했던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으니까. 이슈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든 도매에서 대리점을 상대하든 영업하는 입장에서 말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KT가 좋아졌다는 반증은 신규개설 상담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KT를 왜 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고 이전에 최선의 자세

유조합원은 나름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1분기를 보내고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다. 조금만 더 경쟁사를 압박해 경쟁수위를 높이면 KT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자체적으로 좋다는 자부심에 비해 막상 고객들에게 녹아드는 정도는 차이가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아쉬움이다. 해서 대리점과 고객에게 보다 강하게 인지될 수 상품이 출시되고 대국민 홍보도 보다 활발해져 상품에 손쉽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늘 외로운 줄타기입니다.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51:49의 균형을 유지해야 해요. 회사에서 녹을 받지만 그건 시장에서 올라오는 가입자들을 통해 나오는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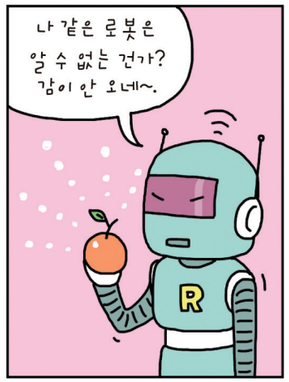
그는 현재 규모 있는 대리점을 발굴해 올 4월 가시화를 앞둔 단계다. 자신이 맡은 대리점이 KT의 로열티를 가지면서 상권까지 형성하는 것은 매니저로서 더할 나위없는 자부심일 것이다. 최고가 되기는 어렵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의 일상은 초단위로 흘러간다. 물류방 유선방 VOC방 등등 스마트폰에 개설된 16개의 모바일 커뮤니티는 쉴 새 없이 울려대며 그의 답변을 재촉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3남매와 놀아주지 못하는 미안함은 오래됐다. 오죽하면 휴일 사우나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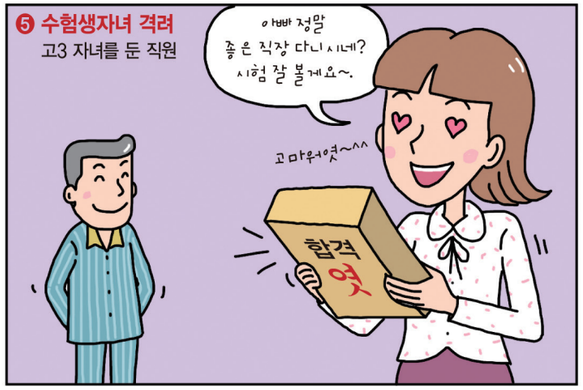
하지만 그는 다 받아들인다고 했다. 8시에 출근해 10시에 귀가하고 하루 100통의 내부 메일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큰 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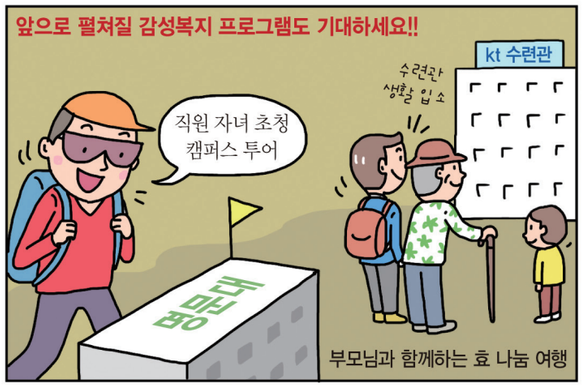
"전천후가 되어야 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해야겠다는 욕심을 내면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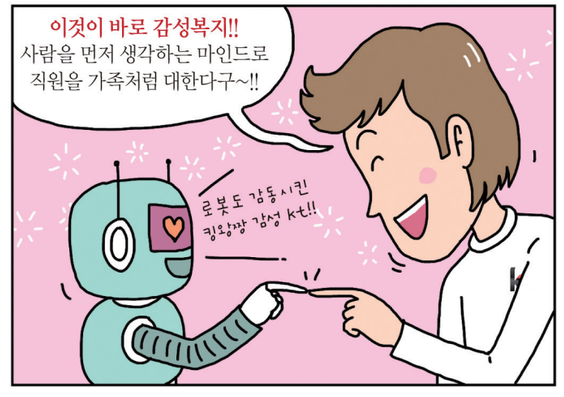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과 새로운 기대가 공존하는 예측불허의 미생 안에는 완생을 향한 무수히 많은 길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병복 조합원은 오늘도 버티고 버티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다. 조용히 응원을 보내는 것. 우리의 몫은 단지 그뿐이다.

감성복지
단순한 제도가 아닌 감성 돋는 혜택들









왼쪽부터 황영미 여성부장, 장원규 조직부장, 김은태 선거관리위원회대표, 안요찬 집행위원, 박영태 지원부장, 김성삼 지부장

뚝심과 저력의 기술자들이 뭉쳤다 '1등 DNA, TOP 엔지니어링센터'

대구엔지니어링센터 지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부심 하나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은 기꺼이 박수 받아 마땅하다. 지난 12월 창설된 대구엔지니어링센터 지부의 얘기다. 건축물에 지능화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들. 열린 소통으로 전국 최고의 지부를 만들어보겠다는 든든한 '기술자들'이 이곳에 모였다.

유 · 무선 통합센터로 시너지효과 기대

대구를 찾은 날은 비가 많이 내렸다. 손수 우산을 받쳐 들고 마중 나와 인사를 건네는 김성삼 지부장의 얼굴이 가문 땅을 적신 봄비처럼 반갑다.

신설 지부답게 새로이 마련된 사무실의 분위기는 사뭇 정갈했다. 박영태 지원부장, 장원규 조직부장, 황영미 여성부장, 김은태 선거관리위원회대표, 안요찬 집행위원 등 부서장들이 환한 웃음으로 악수를 건넨다.

대구엔지니어링센터는 지난해 12월 본사소속의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구축본부 엔지니어링단에서 대구네트워크본부 대구엔지니어링센터로 조직이 변경돼 창설됐다.

총 4개 팀, 그러니까 대구네트워크운용본부 무선운용센터 내의 1개 무선시설팀을 엔지니어링센터 내 유선분야를 담당하던 설계1팀 감리1팀 감리2팀과 합쳐 유 · 무선통합 개념의 대구엔지니어링센터로 흡수한 것이다. 기존에는 유선만 관리하던 것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셈인데 인원은 모두 36명이다.

대구엔지니어링센터에서 하는 일은 일련의 집짓기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의 건물에 정보통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설계가 있어야 하고, 통신선로, 전송, 초고속 인터넷, 무선, 구내통신, 전원, 등 감리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대구엔지니어링센터의 임무다. 건축주와 입주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최적의 형태로 ICT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작업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엔지니어'라는 자부심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해 대구와 경북지역 일대에서 대구엔지니어링센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과거에는 공급구축 차원에서만 일을 진행해 관리 감독 구축 설계만 담당했지만, 이제는 영역이 생산으로까지 확대되다보니 영업컨설팅, 품질개선 신설 증설 업무에 더해 유지 보수업무 지원까지 감당해야 한다.

안요찬 집행위원은 타부서는 돈을 버는 부서인데 비해 엔지니어링센터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더 많은 시설을 기술적으로 관여해서 구축해야 하는, 다시 말해 최 적정 예산으로 고객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해야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우리들은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원부서이다 보니 성과창출이 드러나지를 않죠.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주고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해주는 이 역할이 수익을 낸다 해도 저희는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값어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신상품이 출시되면 상품에 맞춰 시설 구축이 뒤따라가야 하는 위치다 보니 기한은 따로 없이 무조건 완료 해야 된다는 어려움으로 밤낮 야간작업이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구엔지니어링센터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우리들은 모두 '기술자' 입니다. 동일업무가 아니라 통신 전 분야 설계, 감리 등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와 감리는 운용 이전의 최상단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으로 운용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항상 숨은 데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단시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여했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장점이고 자랑입니다. '아, 저곳은 내가 예전에 설계 감리해서 만들었었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자부심! 마치 배 한척을 만들어 줬는데 어딘가에서 내가 만든 그 배가 보였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에서 팀워크는 필수다. 사고가 발생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수 인계할 때 어느 한 분야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같이 말한다. 그래서 업무를 앞두고는 반드시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협업을 논의한다.

김성삼 지부장

열린 소통, 열린 공간

이제 유 · 무선이 합쳐진 만큼 조합원들은 업무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이전에 본사에 있던 지부가 지역의 6개 엔지니어링센터를 관장할 때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지부장과의 대면기회가 잦아져 조직의 변화도 훨씬 긍정적이라 입을 모은다.

"지부가 창설된 지 이제 3개월입니다. 드러난 변화를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일단 조합원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다 보니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조합원들의 궁금증이나 건의사항도 지부사무실로부터 실시간 피드백이 되니까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별도의 휴식 공간도 제대로 없어 회의실에서 쉬곤 했었죠. 조합원들은 바쁜 업무 때문에 재충전할 여력도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지부 사무실에서 틈나는 대로 편안히 휴식도 할 수 있고, 저도 업무출장이나 회사 내 각종행사에 동참해 동료로서 조합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요. 또 감성케어 프로그램 활동도 조합원 들에게 일일이 챙겨주니 모두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김성삼 지부장은 지부장이라는 위치는 권위가 아닌 소통의 자리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조합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애 · 경사는 물론 개개인의 고충 해결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신뢰의 바탕을 만들도록 노력한다고.

김지부장의 KT와의 인연은 89년부터다. 경북 청송 전화국 시절을 거치면서 93년에는 5대를 시작으로 9대까지 연이어 사무부장의 자리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해왔다. 이후 2004년 대구로 전입해 여러 사내 · 외 행사에 항상 솔선수범하며 앞장서 활동하는 모습이 동료들의 추천권유로 이어지고 마침내 올해 2월 대구엔지니어링센터 창설 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노동조합활동의 기초 뼈대를 탄탄히 다져온 만큼 김지부장은 이제 지부장의 자리에서 그 봉사의 의무를 보다 현명하게 이어가려 한다.

최고의 엔지니어링센터로 발돋움하도록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도 눈에 띈다. 일단 무선시설팀은 조직만 합병되고 사옥은 멀리 떨어진 효목동에 있다. 틈나는 대로 서로 만나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대구엔지니어링센터 지부 최초의 여성부장이 된 황영미부장은 효목동에 있는 무선시설팀 소속이다.

"저를 포함해 14명의 효목사옥에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지부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속은 이쪽이지만 업무는 효목사옥 내에서 공유되는 부분이다 보니 한 사무실 중간에서 14명만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오늘도 효목사옥 여직원들 8명이 회식이 있었는데 저만 이쪽 소속이라 열외 됐네요."

덕분에 김지부장은 두 건물을 왕래하는 부지런함도 포기할 수 없게 됐다.

"효목사옥 조합원들의 고충을 잘 수용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시설팀 내의 볼링모임인 'Ten pins'와 'olleh 대구산악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등 조합원들의 활동에도 함께 참여해 공감해 갈 겁니다."

창설지부로서 변화해가고 만들어가는 기대감에 대구엔지니어링센터 조합원들의 파이팅은 여느 때보다 활기차다.

"기존에는 지부행사가 미약하고 늘 한 걸음 늦었는데 지금은 봉사활동 모임 하나에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아무래도 지부장이 옆에 있으니 매일 얼굴을 보면서 묻고 얘기하게 됩니다."

지부가 생기고부터 일어나는 눈에 띄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는 박영태 지원부장에 화답하듯 김지부장은 이 훈풍의 기운을 몰아 초보 지부장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굳게 약속했다.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너무 많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부장의 위치보다는 동료의 친근함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대구엔지니어링센터는 앞으로 월1회 집행위원들의 모임을 갖고, 보다 화합된 동질감을 위해 소 동아리행사, 건전모임 등 전 조합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부장을 도와 최고의 지부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전하는 장원규 조직부장은 마지막으로 조합원들 역시 센터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를 당부했다.

노사상생의 긴밀한 바탕아래 유 · 무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보이겠다는 대구엔지니어링센터.

'1등 DNA, TOP 엔지니어링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클래스가 다른 음지로부터의 도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온플랜 웨딩서비스 이용후기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준 다온플랜, 적극 추천합니다

강남고객본부지부 남부유통담당
송파마케팅부 신민철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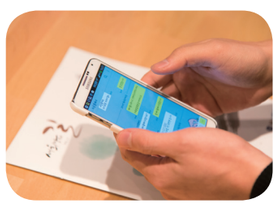
웨딩관련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아진 수요만큼이나 증가한 것이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다. 그 어느 날보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결혼 앞에서 불상사를 당하고 난감해하는 예비부부도 적지 않다.

혼사를 앞두고 있던 신민철 조합원도 고민이 많았다고. "먼저 결혼한 선배로부터 웨딩컨설팅 업체를 추천 받으려고 조언을 구했는데 선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필요한 때에 도무지 플래너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서너 번 전화를 해야 마지못해 한참 지난 다음 연락을 줘서, 준비자체가 엉망이 돼버렸다고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컨설팅회사를 선정하는 잘못된 기준이 문제의 발단이다. 너무 영세한 곳은 경영난으로 인해 행사 당일에 웨딩드레스가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할 수 있다. 당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요즘처럼 웨딩컨설팅 업체가 난립한 시대에는 과도한 행사진행이나 무분별한 미끼상품을 내걸어 과대광고를 하는 곳은 꼼꼼히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때문에 안정된 서비스로 검증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보다 쉽게 만족스러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 신민철 조합원은 다온플랜에서 웨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난 뒤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됐다고.

"김미숙 플래너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결혼이니 미처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뭐부터 진행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다온플랜의 김미숙 플래너님이 사소한 것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체크하고 신경 써주셨어요. 저와 예비아내가 연락하기 전에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촬영하는 전날에도 긴 문자와 카톡으로 다시 한 번 관련 팁 등등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더군요. 우리가 뭔가를 재촉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다 알아서 진행해 주시니 무척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온플랜과 김미숙 플래너의 정성에 감동한 신민철 조합원은 지인들에게도 다온플랜의 서비스를 적극 추천한다고. 신 조합원의 소개로 김미숙 플래너의 서비스를 받은 조합원이 다시 다른 조합원에게 추천을 하는 덕에 동기들 중에서도 웨딩서비스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요즘 밀착관리를 홍보로 내세우는 곳이 많지만 우리가 다온플랜 이전에 알아본 곳들은 계약 전과 후의 태도가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온플랜은 한결같은 서비스와 정성어린 조언을 주셨죠" 신민철 조합원의 말대로 바쁜 직장인들을 대신해 가족의 마음처럼 챙겨주는 웨딩서비스, 그것이 다온플랜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



웨딩플래너는 결혼이라는 대사를 함께 치르는 동반자

KT 전담 김미숙 웨딩플래너

바쁜 직장인에게 결혼은 예식에서 신혼여행지 예약까지, 신경 쓰고 마련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로 쌓이면서 준비과정이 가장 큰 스트레스이고 부담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비용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겨난 것이 웨딩플래너 업체. 하지만 동일업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비부부들의 업체에 대한 선택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형식적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웨딩업체나 플래너를 잘 선택해야 일륜지대사의 소중한 추억이 유지될 수 있다.

"저에게 고객은 얼마짜리 손님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행사를 같이 치러나가는 동행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수 십 년 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따로 살아온 남녀가 가족으로 재탄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잘 알기에 어느 것 하나 사소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숙 플래너는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이르기까지 예비 부부와 같이 그들의 결혼식을 준비한다. 특히 3월에서 5월은 가장 바쁜 결혼 시즌이다. 고객의 일정을 다 기억하고 관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리와 휴대폰을 들고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닌다. 처음 미팅단계에서부터 웨딩앨범이 다 나올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일일이 꼼꼼하게 다 챙기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 어찌 보람만 있을까. "요즘 분들은 대개 똑똑하고 정보에도 밝아서 절대 손해는 안 보려 하시죠. 게다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플래너의 화려한 면만 보고 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열에 아홉은 오래 못하고 그만두세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죠"

고객접점 분야에서 일하는 만큼 김미숙 플래너도 간혹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이 일이 천직이라고 여기는 것은 워낙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에다 그녀의 진심과 정성을 알아주는 고객들 때문이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잘 다녀왔다며 전화하고, 결혼한 지 수 년이 지난 후에도 지인을 소개하겠다며 손수 연락을 주는 고객도 많단다. 능력 있는 최고의 플래너라는 고객들의 찬사에 김미숙 플래너는 손을 내저으며 '합리적인 예산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끌어내는 다온플랜만의 서비스'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온플랜 서비스는 직원복지와 연계된 상품이라 마진을 높이기 보다 상품의 높은 퀄리티와 합리적 구성에 더 신경을 쓴다. 10년 동안 최고의 웨딩플래너라는 찬사를 유지하고 있는 김미숙 플래너의 비결은 예비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 해결해 드린다는 자부심이다. 김미숙 플래너는 오늘도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의 소중한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온플랜
1577-1555

지친 삶, 치유와 사색의 쉼표!

해아림과 함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마음의 근육을 기른다

kt 해아림 심리상담센터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내몬다. 해아림은 상담을 통해 개인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게 목표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신 해결해 주기 바란다. 하지만 문제의 열쇠는 스트레스 당사자가 쥐고 있다.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미처 깨닫지 못한 스스로의 마음을 같이 탐구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깨달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얘기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생긴 심리적 상처가 있다면, 마음의 힘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가정 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대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버지들이 퇴근 후 아이들 교육이나 가사업무를 분담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다. 조합원인 김모씨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자녀를 둔 상황에서 해아림 힐링 캠프에 참가하게 됐다. 또 다른 참가자인 이모 조합원 역시 동료들과의 불화로 우울증이 깊어졌다. 업무가 몰리면서 예전엔 서로 돕고 조언을 해주던 동료관계가 삭막하게 변질됐다고 느끼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해아림 힐링캠프에서는 이러한 마음속 고민과 스트레스를 조별 상담을 통해 서로 고백하면서 모두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다. 또한 기존의 잘못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깨닫게 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정 내 불화로 상담을 신청했던 김 조합원은 “저도 경쟁사회에서 종종 숨이 막힌다는 압박감을 느꼈으면서도 아이들에게도 남보다 무조건 앞서나갈 것을 은근히 강요하지 않았나 반성이 되더군요.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깨닫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공부에만 매달리게 하진 않았나 하고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허물없이 대화하고 그로 인해 깨닫게 되었지요. 이번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의 소중함과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호응이 가장 좋은 것은 심리극 치유다. 그 자리에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말 못한 이야기를 쏟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속 감정을 토해 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한 번 하고 나면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확 풀린 것을 경험한다. 두세 번 더 진행하면, 마음이 더욱 단단해진다.

해아림의 힐링 캠프는 처음에는 모두 쑥스러워 하고 귀찮아 하던 조합원들이 초반 상담과 강연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열면서 유쾌하고 따뜻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선정, 심리극으로 만들어 각자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담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덧붙였다. “저는 평소에 밝게만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구요.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나를 만나고 진짜 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힐링캠프을 통해 즐거움 속에서 의미를 찾고 몰랐던 바를 눈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이은아 해아림 심리상담센터장

해아림의 이은아 심리상담센터장은 우울증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평소 대처하는 자세로 명상을 추천했다. 명상을 하면 감정이 조절되면서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 중 스트레스가 적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 자연스레 ‘긍정적 기분’으로 바뀐다. 또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신체가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 많이 발생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데, 명상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해아림에서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의식 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상황과 그로 인한 불쾌감 등에 집중하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은데, 원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등을 차근차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알아가는 게 첫 번째 연습이다. 다음으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본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 처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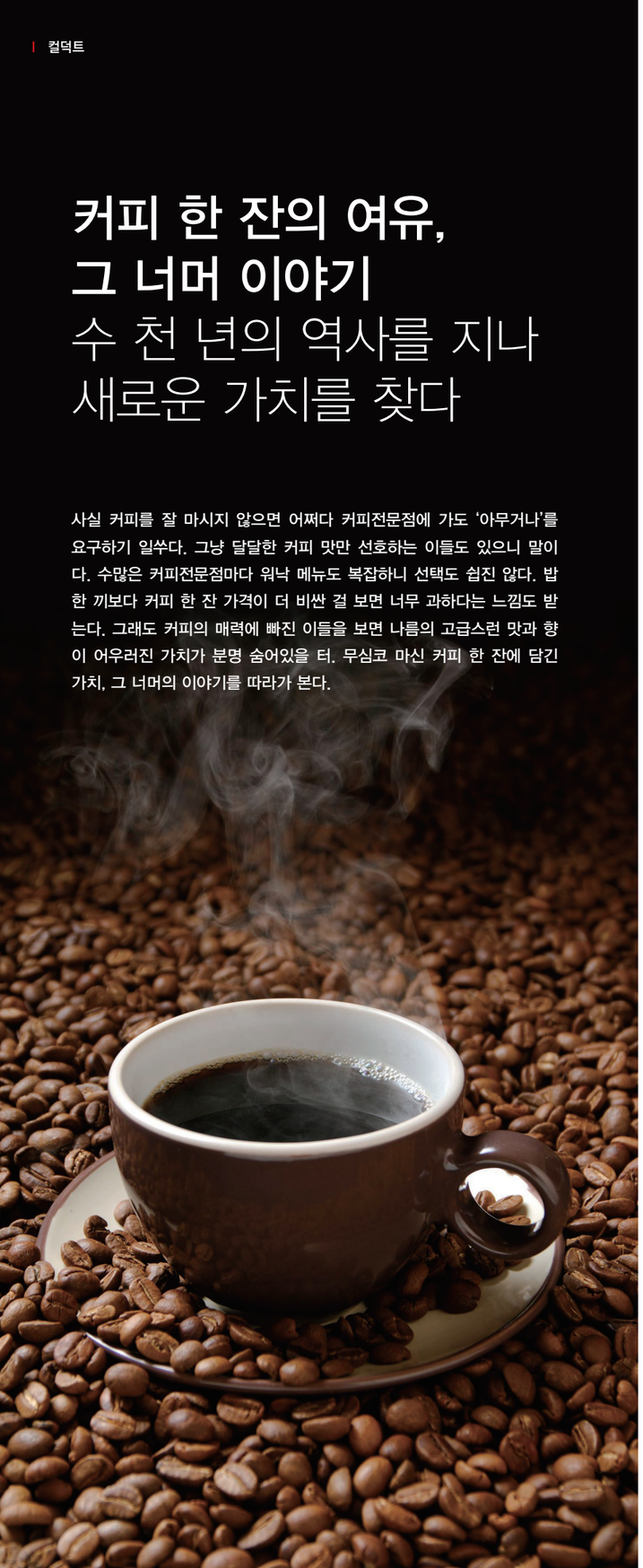
“케이스 별로 다르지만 마음의 병이 본인 생각보다 깊은 조합원들이 계세요. 물론 한 두 번의 상담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꾸준한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은아 센터장의 말이다.

이 센터장은 모든 상처와 그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치유 이후,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전화상담 | 1577-1402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너머 이야기
수 천 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가치를 찾다

사실 커피를 잘 마시지 않으면 어쩌다 커피전문점에 가도 '아무거나'를 요구하기 일쑤다. 그냥 달달한 커피 맛만 선호하는 이들도 있으니 말이다. 수많은 커피전문점마다 워낙 메뉴도 복잡하니 선택도 쉽진 않다. 밥 한 끼보다 커피 한 잔 가격이 더 비싼 걸 보면 너무 과하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래도 커피의 매력에 빠진 이들을 보면 나름의 고급스런 맛과 향이 어우러진 가치가 분명 숨어있을 터.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에 담긴 가치, 그 너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돼 식민 재배로 이어진 역사

커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문헌은 남아있지 않다. 커피나무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마시는 음료로 발전한 곳은 아라비아 지역이다. 이후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터키 수도승들이 즐기는 음료가 됐다. 커피의 각성효과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됐던 모양이다. 이때부터 생두를 로스팅(생두에 열을 가해 볶는 과정)해 끓여 마시거나, 갈아서 우려마시기 시작한 것이 현재 터키식(이브릭) 커피로 이어진다.

십자군 원정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커피는 유럽인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커피는 유럽에서 이슬람교의 음료라는 이유로 억압받기도 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사탄의 음료'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사탄'이던 커피가 1900년도에 이르러 압축식 추출 기계 개발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후 이탈리아 정통 커피 에스프레소는 물이나 우유를 적절히 섞어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등 다양한 종류의 친숙한 커피로 재탄생됐다.

커피는 유럽에서 예술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대우를 받기도 했다. 베네치아의 카페 '플로리안'은 1683년 문을 연 이래 괴테, 카사노바, 바그너, 릴케, 니체 등 유수한 명사들이 찾아 오늘날까지 남아있기도 하다. 커피는 다양한 예술가, 작가, 철학가 등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작 욕구를 불어넣어줬으니 당시 역할이 작다고 보긴 힘들겠다.

이후 커피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된 것은 17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각국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부터다. 커피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 묘목을 이식해 '커피벨트'라는 오늘날 커피 생산 지역이 만들어졌다. 현재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도 이 시기를 거쳐 가장 많은 커피 생산국이 됐고, 주변 남미 국가로도 퍼졌다. 동남아시아에도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커피가 전파돼 현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이 세계적인 주요 커피생산국이 됐다.

국내에서는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황제가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10여년 전에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1919년 '삼일운동' 후부터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커피숍이 생겨났다. 유럽에서처럼 국내도 초기에는 시인 이상 등 많은 예술가들이 찾았고, 관료나 상류층이 누리는 특권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통해 보급된 인스턴트 커피는 70년에 들어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70~80년대에는 다방이 커피를 즐기는 장소의 대명사였다. 2000년 이후부터 세계 유명 커피 프렌차이즈가 국내에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의 다양한 커피전문점이 나오기에 이른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커피는 아라비아, 터키에서 유럽으로 전파됐고, 식민지 재배와 국내까지 이어지는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생산 체계를 이룬 셈이다.

공정무역 시작하는 공정 음료로의 탄생(?)

유럽의 식민지 재배 과정에 놓였던 커피는 2000년대 초반 커피 가격폭락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 커피 가격 붕괴는 중앙아메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약 1억2500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붕괴다"라고 경고했다.

당시 커피 재배 농민들은 빈곤과 실업, 영양실조가 늘어나면서 도시로 나가거나 가축 사육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남미 국가에서는 마약성 작물로 대체해 키우기도 했다. 인간적, 생태적 파괴가 커피 생산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점차 국제 커피 시장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폭락 사태가 해소되진 않았다. 영세 농민들은 시장 가격 변동에 여전히 취약하고, 현지 바이어나 다국적 기업 등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이 커지면서 커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공정무역 등 새로운 거래 방법이 확대되기도 했다. 최악의 가격 붕괴 위기 속에 소수의 농민들은 '아라비카' 커피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커피나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를 판매했다. 세계 시장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저 가격을 보장받았던 것은 사실 공정무역 커피뿐이었다.

그럼 공정무역은 이같은 불안한 시장 구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영세한 농민들을 변화시키고, 기형적인 시장 시스템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과 생태계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힘들다. 아직 세계 시장 경제와 맞물려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했기에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삼는 소비자들이 점차 깨어난다면 말이다. 오랜 역사 속에 세계인들의 희노애락과 함께 한 커피. 이 한 잔의 여유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한 커피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

별 아저씨의 별별이야기

4 · 5월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 하고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연일 뉴스의 앞부분을 차지하는 시대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점점 더 마음의 치유를 필요로 한다. 말그대로 힐링이 대세인 시대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치유를 찾아 나선다. 여행을 떠나거나 주말에 캠핑장을 찾는다. 여행을 가든 캠핑을 가든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이왕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갔다면 바비큐에 즐거운 음주도 좋지만 거기에 보태서 힐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보는 것도 좋지만 금방 목이 아프다. 날씨가 좋다면 불빛이 별로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펴고 아이들과 누워보자. 밤하늘이 라이브 영화의 상영관이 되어 줄 것이다. 영화도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의미를 아는 것처럼 밤하늘도 알고 봐야 재미있고, 아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을 큰곰과 사자가 있는 4월 및 5월 밤하늘로의 여행에 초대한다.

봄철은 우리가 흔히 북두칠성이라 알고 있는 7개의 별이 포함된 큰곰자리와 사자자리, 그리고 처녀자리와 목동자리로 대표되는 훌륭한 별자리가 밤하늘을 수놓는 계절이다.

북두칠성과 큰곰자리(Ursa Major)

북두칠성은 국자모양의 밝은 별 일곱 개로 이루어진 별자리 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2등급의 밝은 별 여섯 개와 약간 어두운 별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대다수 별자리 책을 보면 정식항목으로 북두칠성을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별자리는 총 88개 인데 그중에 북두칠성은 없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북두칠성은 동아시아 국가들만 가지고 있는 별자리 이며, 서양에서는 큰곰자리의 엉덩이와 꼬리에 해당하는 별이다. 그렇지만 실제 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북두칠성을 쉽게 찾지만 정작 큰곰자리를 전부 그려내는 사람들은 전문가 외에는 거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두칠성을 먼저 찾아보자. 7개의 별 중에서 6개가 2등성이니 누구나 찾기가 쉽다. 그중에서 국자 쪽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큰곰의 엉덩이 부분이고, 손잡이에 해당하는 별 3개가 큰곰의 꼬리 부분이다. 그렇게 연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엉덩이 앞쪽의 큰곰 몸통과 머리 부분을 실제 별자리 사진과 대조해 가면서 찾아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두운 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애를 먹을 수도 있다.

| 북두칠성은 큰곰자리의 엉덩이와 꼬리부분에 해당한다.

제우스를 사로잡은 칼리스토의 슬픈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큰 곰 자리의 주인공인 칼리스토는 빼어난 외모에 사냥 솜씨가 뛰어났던 공주였는데 칼리스토의 미모에 반한 제우스는 그녀를 유혹했고, 칼리스토는 제우스와의 사랑으로 아르카스를 낳았다. 이것을 알게 된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칼리스토를 흰곰으로 만들어 버렸다. 엄마를 잃은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는 한 농부의 손에서 성장을 하였고 친모의 사냥 솜씨를 대물림하여 훌륭한 사냥꾼으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숲 속에서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는 사냥 나온 아들 아르카스와 마주치게 되고, 칼리스토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신이 곰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르카스를 껴안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르카스는 사나운 곰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활시위를 당겼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둘을 하늘에 올려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 별자리로 만들었다.

시력 검사에 도전! 북두칠성의 6번 별 미자르!

북두칠성에는 재미있는 시력검사용 별이 있다. 북두칠성 사진속의 번호를 살펴보자. 별 일곱 개의 밝기가 모두 같지는 않으며 유독 4번별(메그레즈)만 다소 어둡다. 그중 6번별은 자세히 보면 아주 가까이에 어두운 별이 하나 더 있으며 시력 좋은 사람은 이 별이 육안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어두운 별이 보인다면 시력이 1.0이상은 된다. 밝은 별이 미자르이고, 어두운 별이 알코르이다. 두 별이 가까이 있지만 사실 두 별간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사자자리 (Leo)

별자리의 이름과 형상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으나 사실과 다르다. 별자리 이름과 실제 별자리를 보았을 때 이름이 연상되는 별자리는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봄철의 사자자리는 별자리 이름과 별자리의 형상이 거의 일치하는 재미있는 별자리다. 사자자리 사진 속 별자리의 이음선을 보면 누구든지 사자의 형상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봄철에는 밝은 별이 몇 개 없는데 그 중 사자자리에는 레굴루스라는 1등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4월 중순경 밤 9시 정도면 사자자리는 거의 천정높이까지 올라간다. 고개를 완전히 젖히고 하늘의 천정부근을 유심히 보면 다른 별에 비해 밝은 1등성이 하나 보인다. 그 별이 레굴루스이다. 꼬리 끝에 해당하는 밝은 2등성인 데네볼라를 사자자리의 끝별이라 생각하고 중간에 몸통이 될 만한 별을 찾아보면 어느덧 사자자리를 완성 할 수 있다. 이렇듯 사자자리는 사자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하나 하나 짚어가는 맛이 있다.

처녀자리 (Virgo)와 목동자리(Bootes)

그 외에도 처녀자리는 봄철의 의미를 신화로 알려주는 별자리로서 스피카라는 1등성이 밝게 빛나고 또한 다양한 신화가 혼재한다. 또한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중 하나인 목동자리(Bootes, 부츠가 아니고 보오테스라고 발음한다)는 봄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아크투르스쪽을 손잡이로 하고 좌측으로 길게 뻗어나간 길쭉한 5각형의 도깨비방망이를 연상케 하는 별자리다.

| 보리이삭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스피카라는 1등성이 빛난다.

| 아크투르스라는 1등성은 마이너스등급(−0.07)의 밝은 별로 한반도 전지역에서 보이는 모든 별 중에서 두 번째로 밝다.

지면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실을 수는 없지만 자세한 별자리 정보는 인터넷에 넘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맑은 날 밤에 직접 올려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별을 유심히 한번 관찰하는 경험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힘들다면 필자가 근무하는 춘천의 별관측소로 별 나들이 오시기를. 지칠 때까지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관측을 도와준다. 연중무휴로..

[필자소개]
김호섭
現 강원도청소년수련관 『별과꿈』 별관측소 소장 www.gystar.co.kr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mabin@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울산유선운용센터 지창현 조합원
'가족과 먹는 밥상' 기사를 잘 봤어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단순히 현상의 나열만 해주는 기사와 달리 심층적인 진단과 적절히 감성을 깨워주는 글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해주세요.

KT남대구지부 황병호 조합원
다양한 콘텐츠를 알차게 꾸민 것 같아서 담당자 분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창 사내방송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kt Wiz 기사를 보면서 kt Wiz가 올 한해 한국야구의 10번째 심장으로서의 파이팅하는 모습과 kt 구성원으로써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남고객본부 김범석 조합원
이번 '길'에서는 노사관련 뉴스가 넘쳐 많은 부분이 관련 소식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2015년의 노조 추진방안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노조위원장님께 듣는 코너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에도 알찬 소식으로 많은 노조원에게 길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KT서광주지부 김경순 조합원
우리 KT 온 가족의 건강식재료를 챙기는 '얼었던 몸과 마음의 생기를 깨우자' 라는 페이지 정말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60일 코너'도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계속 좋은 글과 정보 부탁 드립니다.

강서무선운용센터 기태환 조합원
'식구와 먹는 즐거움'이라는 기사를 봤다. 가족과 함께 먹는 것에 이런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 지는 미처 몰랐다. 이제 곧 돌이 되는 우리 딸과 늘 저녁이라도 함께 함으로써 건강하고 예의 바르며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바람이 생겼다.

대구유선운용센터 백용기 조합원
구성과 각각의 내용이 한층 알찹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큰 이슈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읽을거리가 훨씬 풍성함을 느낍니다. 꾸준한 발전으로 KT를 대표하는 Magazine 뿐 아니라 전체 노조 중 최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운용센터 이승희 조합원
'길따라 멋따라' 코너를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은 살면서 참으로 옳은 소리구나 감탄하게 되는 말입니다. 먹는 것이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코너에서 미나리, 냉이 등 신선한 야채로 힘찬 봄맞이 하는 것도 멋진 일이 될 듯합니다.

IMO운용센터 정원환 조합원
'워크맨을 추억하며 내 손안의 음악여행이 시작되다'를 읽고 옛날 생각을 해보게되네요. 어릴 적에 워크맨 허리에 차고 헤드폰이나 이어폰 끼고 다니던 게 한참 부러웠던 때가 있었군요. 기술이 진화되어 하나씩 없어진 풍경입니다. 아쉽네요.

KT안산지부 김상원 조합원
이번 달에 유난히 사내 · 외 유익한 정보가 많네요. 특히 식구와 먹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여섯 가지는 나름 동감이 가는 내용으로, 나홀로 식사가 늘어가는 현대사회인 모두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KT순천지부 양병현 조합원
광화문 신사옥에 대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보면서 내내 한 번 견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에 있으면 본사 건물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번 호 소식지 덕분에 상당부분 많은 궁금증을 해갈할 수 있었습니다.

KTTU QUIZ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 TV 사업자는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14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똑똑한
나의 웨딩플래너
다온플랜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다온플랜이 준비해 드립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다온플랜 웨딩서비스 안내

- 추가 비용없이 가입상품으로 결혼 준비 모두 해결
- 스 · 드 · 메 및 리허설/본식 헬퍼비용, 웨딩카 또는 원본 CD, 폐백 음식 또는 DVD 제공
- 전국 웨딩홀 및 웨딩업체 업무 제휴로 전국 행사 가능
- 전국 웨딩홀 무료 섭외 및 할인혜택 제공
- 전문 웨딩플래너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웨딩 플래닝 서비스 제공
- 웨딩서비스는 다온 1호, 다온 1–13호(300만원 상품)으로 이용 가능
- 결혼 관련 문의는 1577–1555(내선번호 2번)로 문의

다온플랜

(주)다온플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본사 2층 (주)다온플랜
TEL. 1577-1555, 031-727-4803~4 FAX. 031-727-4809